

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에 관한 비교

김정숙, 반미희, 주정옥
부 산 과 학 영 재 학 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현대사회의 물질적 풍요, 기계문명의 고도화, 사회, 문화, 경제의 급속한 변화로 말미암아 스트레스, 허탈감, 긴장감, 소외감 등의 정신적 불안을 느끼게 되면, 자신의 자질을 상실하게 되거나 탈 인간적인 정신장애의 발생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에 속하는 고등학생들은 이러한 사회 변화를 겪으면서 학업문제, 가족 내 갈등, 성 문제, 친구문제 등으로 고민하며, 이것이 심화되어 신경증과 정신 신체적 장애 및 부적응 행동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박종미, 1997)

이 또한 이 시기에는 여러가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개체 발달과정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이며 외부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시기이다. 동성간의 관계보다는 이성간의 관계가 부각되고 개인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며 생활에 불균형 역할 혼동으로 정서적 갈등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미묘한 시기에 가정이나 학교를 포함한 사회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갈등이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정적인 행동이나 신체, 정신적 건강의 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김경식, 1987)

이렇듯이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의 문제가 있고, 정서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교육풍토는 기복이 심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인격적 성숙의 결여로 진로에 대한 정서적 불안, 시험에 대한 중압감, 긴장감, 갈등, 욕구, 좌절 등 심리적 부담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최근에 국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영재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일연령 집단과 비교하여 매우 뛰어난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는 취지에서 2002년 9월 6일 과학영재 학교 교육대상자 최종 144명을 선발하여 2003년 3월 5일 입학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소수의 영재학생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적절한 자극은 미흡하고, 영재학생들에게 주

어지는 가정과 학교의 높은 기대감은 영재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과학 영재 학교는 타 어느 학교보다 더 많은 기대화 특수 교육방법이 있기에 그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불안은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더 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영재학생 1학년과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부적응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부모나 교사에게 제공할 뿐 아니라, 부모나 교사, 학교가 학생들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문제를 인식하여, 학생들의 상태불안 및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경감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과학영재고와 일반고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 2) 과학영재고와 일반고의 상태불안을 비교한다.
- 3) 과학영재고 학생의 상태불안을 성별로 비교한다.
- 4) 과학영재고 학생의 배경변인과 상태불안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 5) 과학영재고와 일반고의 정신건강을 비교한다.
- 6) 과학영재고 학생의 정신건강을 성별로 비교한다.
- 7) 과학영재고 학생의 배경변인과 정신건강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 8) 대상자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한다.

2. 용어의 정의

1) 상태불안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상태가 변화하는 인간의 정서 상태로 특정한 시간 및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을 말한다.(Spielberger, 1975)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두려움, 불안감, 초조감 등이 긴장이 계속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반응으로서 Spielberger의 State-Trait Anxiety Inventory에 의해 총 20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된 상태불안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불안의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2) 정신건강

정신건강은 다른 사람과 조화되는 신체적, 지적, 정서적인 면에서 최적으로 발달된 상태(김희정, 1992)로, 자신을 사랑하고 발견하는 능력이며, 더불어 정신과 신체의 역동적 관계까지를 포함한다.(김선미, 1993) 본 연구에서는 Derogatis(1973) 등이 Hopkins Symptom Check List(HSCL)를 발전시켜 만든 90문항의 Symptom Check List(SCL-90)를 이

훈구(1986)가 47개의 문항으로 요인 분석하여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여 5점 척도로 측정 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II. 문헌고찰

1. 영재의 특성

1) 영재의 개념

“영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인 바탕에 근거한다기보다는 그 사회, 시대, 문화가 가치롭다고 여기고 우수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다.

영재에 대한 초기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재의 개념규정이 지능이라는 단일요인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졌다(전경원, 1992 재인용), 그러나 최초의 지능 검사가 언어능력만을 강조하는 경향이었고, 비교적 제한된 범위의 능력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영재의 특성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창의력이나 사회적 능력, 예술적 능력은 측정할 수 없었다. Renzulli(1978)는 평균 이상의 능력, 과제 집착력, 창의성의 세 요소를 영재의 특징으로 주장하였다. 이러한 토대로 미국 교육부에서는 1972의 정의한 것에 의하면 ‘영재는 지적, 창의적, 특정 학문적, 지도력 또는 예체능 영역에서 높은 성취의 증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능력 또는 잠재 능력을 가진 아동이며 적응여하에 따라 학령전 초·중등 수준에서도 판별 될 수 있는 아동이다. 이들은 학교에서 보통 교육프로그램 이상의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아동이다’라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로 영재를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지능뿐만 아니라 특수 학문 적성, 창의적 사고 능력, 예술적 재능, 신체적 재능, 기타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를 포괄하는 것이다.

문정화, 하종덕(1999)은 영재들은 의지가 굳고, 인내심이 강하며, 관심 있는 일에는 끝까지 몰두하는 강한 성격과 과제 집착력을 갖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영재를 전통적으로 지능에 의해서 선별하는 단일 요인의 접근에서 탈피하여 최근에는 인지적 특성으로 창의성을 내포하고, 정의적 특성으로 지적 요구에 기초를 둔 과제 집착력을 포함시켜 영재를 정의하고 있다.

2) 과학영재의 특성

오늘날과 같은 사회의 초고속 발전은 과학과 수학이 강조되는 교육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과학영재는 몇가지 뚜렷한 인지적 특성과 부가적인 정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화국(1999)에 의하면 과제의 해결에서도 과학영재들은 과제의 분석력은 물론이고, 통찰력과 직관력이 뛰어나며, 개방적이고 융통적인 사고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는다. 또한, 자율적인 의사 결정과 행동을 선호하며 자기 주도적인 학습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제에 대한 집착력이 매우 높고, 학문적 자아개념도 높으며, 책임감과 지도성이 강하며 성취동기 또한 높다(강호감, 1999). 그러므로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제 집착력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과학지식 창출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신미경(2000)도 과학영재들은 과제집착력, 창의성, 지적재능 간에서 매우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중하(1987)는 과학영재의 정의적 특성을 요약한 7가지는 첫째, 과학영재는 자율성과 자발성이 높고 자긍심이 강해 자기 자신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만족에 대한 기대가 높다. 둘째, 정서적 안정성이 높고 대인관계의 얽힘을 싫어하여 자신의 일에만 집착을 보이고 대중의 관심사에는 열의가 없다. 셋째, 지적, 정서적 취미활동이 다양하며 광상과학영화나 추리소설, 초자연적이고 탐험적인 일에 관심과 흥미를 가진다. 넷째, 부지런한 노력형이며 한가지 일에 몰두한다. 다섯째,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지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을 즐긴다. 여섯째, 자기 나름의 독특한 학습경향을 가지며 자신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기 쉽고 독선적인 것을 꺼린다. 일곱째, 비판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정의적 특성들은 지적 능력과 환경 등 여러 요인과 상호 작용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과학영재는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지적 탐구에 대한 호기심이 대단히 높고, 반성적 합리적 사고에 뛰어나며, 특히 탐구과정에서 원인, 이유, 근거, 배경, 절차 등에 대해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며 답변을 끈질기게 궁리한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조직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복잡한 과제의 학습을 선호하며, 자심감이 강하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며 스스로 통제를 잘하고 개인주의적이며 책임의식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의 불안

불안이란 명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으나 어떤 큰 위험이 곧 닥쳐올 것이라는 생각에 압도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긴장상태"를 말하며, 불안의 개념은 Freud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불안을 현실불안(Reality anxiety), 신경증적 불안(Neurotic anxiety), 도덕적인 불안(Moral anxiety)으로 나누었다. 현실 불안은 어떤 개인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험이 외부에서 실제로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 혹은 공포이고, 신경증적 불안을 실재는 객관적인 위험성이 별로 없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생기는 무력감과 공포와 같은 지나

치게 안절부절 한 감정을 말한다. 도덕적 불안은 자신의 어떤 욕구나 그 욕구충족을 위한 행동이 도덕규범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것일 때 생긴다.

Sullivan(1953)은 상호 인간관계로부터 불안이 비롯되므로 원초적으로는 엄마에서 유아로 전달되는데 안정에 대한 실제적이거나 상상적인 위협으로부터 초래하는 긴장의 경험으로 설명하였고, Pavlov는 우발적인 상황에 대해 나타나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습관적인 반응이라 하였으며, Kim(1978)은 불안을 위협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의 평가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또한, Spielverger는 불안을 스트레스의 어떤 형태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의 연속과 관계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았으며, 개인의 특성과 상황 변화에 따라 생기는 불안을 연결시키는 모형을 통해, 특성불안(Trait anxiety)과 상태불안(State anxiety)으로 분류하였다. 상태불안은 긴장, 걱정을 주관적이고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감정으로 자율신경계의 활동에 연관되며, 그 정도가 다양하며, 유기체를 침해하는 긴장의 기능으로서 시간과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상태불안은 내외적 자극이 위협하다고 여겨지거나 위협적이라고 인식되면 유발된다.

특성불안은 불안경향에서 비교적 안정된 개인적인 차이를 말한다. 즉 광범위하고 위협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반응하는 성질이나 경향은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다, 특성불안은 한 특정 위험이나 위협적인 환경에 관련된 스트레스에 의해 활성화될 때까지 잠재적인 것으로 남아있으면서 위협적인 환경에서 상태불안을 조성한다.

불안이란 개인마다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이므로 같은 상황이라도 각 개인마다 느끼는 불안의 정도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불안의 정도를 다음의 5단계로 나눈다. 그 첫 번째 정도는 다행증(Euphoria)으로 불안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며, 다음 단계는 감각이 민첩해지고 신체적으로 아무런 긴장의 증후도 없으며 오히려 동기(Motivation)가 증가하고 유용한 감정이 되는 경중 불안 상태(Mild-alertness level)이다. 다음 단계는 근육이 긴장하기 시작하고 약간의 발한이 일어나는 중증도 불안 상태(Moderate anxiety), 그 다음 단계는 신체적 증상이 급격히 증가하여 과도한 발한, 설사, 변비등이 일어나고 심리적으로 극도로 고통스러운 심한 불안 상태(Severe anxiety), 마지막으로 극심한 불안 상태의 공황(Panic)이 있다. 불안에 대한 생리적인 반응은 일반적으로 숨가쁨, 식용항진 또는 저하, 골격에 혈액 공급 증진, 빈뇨, 설사, 구강건조, 오심, 구토, 경련이 일어난다. 불안은 반드시 인간에게 해로운 감정만은 아니어서 약한 정도의 조절할 수 있는 불안은 자아에 대한 위협을 보다 재빨리 인식하고 보다 더 민첩하게 행동하게 한다. 이 때의 불안은 건설적인 것으로서 동기요인이 된다. 동기는 개인으로 하여금 변화하도록 자극하는 에너지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불안 증가하여 공황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면 병리적 상태로서 오래 견딜 수

없고, 조절하지 않으면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김소야자, 1997).

고등학생의 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명희(1987)는 여고생 1,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에서 1학년 학생의 상태 불안점수가 3학년 학생의 상태불안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높을수록 입시불안이라는 상태불안은 위협으로 지각되어서 상태불안이 상승함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영자(1995)는 중·고등학생 721명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중고생의 우울 및 불안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었고, 우울과 불안이 가장 높은 집단은 고등학교 여학생이고,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남학생, 중학교 여학생이, 그리고 중학교 남학생 순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우울과 불안 수준이 더 높은 것은 청소년 초기와 중기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예민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우울하고 불안 수준이 높은 것은 청소년 중기에 접어든 고등학생은 발달단계에 따른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관계된 심리적 고민(Psychological distress)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대학입시에 대한 압박감과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하였다.

김정선(2001)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불안, 정신건강에 관해 연구한 결과 인문계 고등학생의 스트레스는 중간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전체대상자의 정신건강 상태는 양호하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불안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와 불안, 정신건강 간에는 상호간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에는 스트레스보다는 불안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3. 청소년의 정신건강

사전에 따르면 “정신”이란 사고나 감정의 작용을 다스리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다. “건강”이란 육체와 아무 탈없이 정상적으로 튼튼하다는 것과 의식이나 사상이 바르고 건실하다는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정신내의 생활에 초점을 둔 프로이트(Freud)는 무의식적 동기의 자각과 이러한 통찰을 기초로 한 자기통제를 정신건강이라고 보았다.

정신이라는 용어는 한자어의 용어이지만, 전통적인 학술용어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적 깊은 본성에서부터 기억, 감정, 의지를 마리 요호다(Marie Jahoda)는 정신건강의 일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신의 정체감과 자신의 느낌과 접촉해야 하며 자기를 의식화하여 행동하고 자기개념을 수정하기로 한다. 이들은 미래지향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적으로 인생에 투자하며 자

기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삶에 대한 통합적 노력을 하며 긴장에 저항할 수 있도록 정신적으로 균형 잡혀 있다. 이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행동하며 욕구의 충족을 위해 독립성을 갖는다. 현실지가 능력이 정확하여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한다. 이들은 호나경의 지배자가 되어 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건강의 정의를 살펴보면 육체와 정신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1948년 세계보건기구가 내린 정의를 보면 각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안녕을 포함해서 건전한 마음과 신체를 의미하며 단순한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건강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차원을 동원해서 현재의 생활 상황에 적응하고 반응하는 한편, 그의 개인적인 통합성을 상호 유지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며, 또 인간이 계속적으로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건강이라 하였다.

설리반(Sullivan)은 인간으로서 효율성, 만족감, 성공감을 증가시키려는 과정들과 사회적 기능에 관심을 두고 정신건강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프롬(Fromm)은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파악하는데 이성을 사용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유일한 개체로서 경험하며 동시에 자신의 친구로도 느끼는 사람, 비합리적인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며 양심과 이성의 합리적 권위를 받아들이는 사람, 살아있는 한 항상 새로 태어나는 과정에 있음을 아는 사람, 인생이라는 선물을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았다.

미국 정신위생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정신건강이란 다만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만이 아닌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정의 내리고 있다. 건강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발달하기 때문에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정신건강의 개념을 정의하기란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임규혁(1984)은 정신건강이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이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란 잠재능력을 성취시키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본다. 또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생활환경을 바르게 인지하고 잘 적응하며 능동적이고 생산적으로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조화롭게 통합된 인간이다. 더 나아가 개인생활의 건전한 유지와 원만한 대인관계로 사회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았다. 선행 연구를 보면 이현주(1992)는 수도권 남, 녀 고등학생 281명을 대상으로한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건강심도를 중증, 경증, 정상으로 나누어 본 결과 각각 전체의 1.78%, 41.28%, 56.94%이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상당 부분이 정신건강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정신건강 심도에는 남, 여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간에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X학년별의 상호작용도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강문희(1999)는 대전광역시와 충남지역 고등학생 815명을 대상으로 한 고등학생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에서 정신건강과 사회적 지지와는 낮은 역상관관계가 있어 사회적 지지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경신(1993)은 과학교 남녀 학생 146명(남:99, 여:47)과 일반고 남녀 학생 142명(남:92, 여:50) 표집하여 정신건강 진단검사와 적응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과학교, 일반고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신체화, 우울 장애가 많은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적대감 장애가 많음을 보여 주고, 과학교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신체화, 강박증, 대인 거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장애가 적음을 나타냈고, 적응을 잘하는 집단에서는 과학교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신체화, 불안, 정신증, 장애가 적은 반면 적응을 못하는 집단에서는 과학교 학생과 일반고 학생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는 성별, 학교 유형, 사회환경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는 이상상태라 할 때 이상행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한 것으로 심인성 원인이 크게 작용하는데 정신의학에서는 크레펠린에 의한 정신장애 분류표를 이용하여 장애의 정도를 이해하지만 간단한 심리 검사에서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하는데 이용되는 하위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신체화

- ① 신체화 장애 : 실제 신체적 질병은 발견되지 않은데도 신체적 증상(두통, 피로, 복통 등)을 호소하는 장애를 말하며 브리케 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자연적으로 회복 되는 일은 거의 없고 만성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 ② 전환성 장애 : 실제 신체적 질병이 없이 순수한 심리적 갈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장애로 사춘기와 성인기 초기에 많이 발생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한 대인 관계에서 자존심이 손상되거나 혹은 체면에 손상되는 것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의적 운동 능력이 크게 저하된다.
- ③ 건강 염려증 : 신체적 장애 가운데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애로써 불합리한 질병에 대한 공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일종의 건강에 대한 집념을 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2) 강박증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고, 심상, 충동 그리고 행동 등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로써 본인 자신은 주관적으로 자신의 강박적 감각을 느낀 나머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제지하고 싶은 욕망은 있으나 그것이 자기 뜻대로 통제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결단력과 통제력을 모두 상실하고 있는 상태이다.

3) 우울증

기분이 매우 우울하고, 정신능력과 운동능력이 심하게 지체된다. 흥미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근심 걱정 그리고 불안이 심한 때도 있다. 직접 경험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병되는 일은 없으나 우울한 정도에 따라서 단순 우울증, 급성우울증, 우울성 흥미, 순환성의 네가지로 분류된다.

4) 불안

긴장, 초조, 신경과민 등 임상에서 모든 불안신경증의 주증세를 포함하고 있다.

5) 예민성

대인관계에서 자격지심과 열등의식, 부적절감 등을 들어내는 것이다.

6) 적대감

무엇을 때려부수고 싶은 충동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7) 공포증

특정한 대상, 활동, 인물 혹은 사태에 대한 지속적이고 불합리한 공포를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환자는 이러한 공포를 회피하려고 하는 욕망이 강하다. 공포를 느끼는 본인은 이와 같이 공포 대상이 실제 자기에게 아무런 위협을 주지 않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회피하려고 한다. 공포증에는 광장 공포증, 사회 공포증, 단순 공포증 등이 있다.

8) 편집증

의심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편집성 성격 장애자 주위 사람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충고를 해주는 사람과 다투는 경우도 있다. 주위의 비판에 대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은 객관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자부하나 부드러운 인간미가 결여되어 있다. 일반대인관계나 직장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9) 정신증

사회적 고나계 형성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람이 멍청해 보이며, 다른 사람에게 부드러운 감정을 표시하지 못하며 공격성이나 적개심을 표시하지 못하며 결단성이 부족하고 현실과 유리되어 백일몽으로써 만족을 얻는다. 이성교제가 드물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남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일에는 성공할 수 있다.

4. 청소년의 상태불안 및 정신건강관계

청소년기의 발달특징을 폭풍과 스트레스의 시기, 좌절과 고통의 시기, 격렬한 갈등과 적응위기의 시기, 꿈과 몽상의 시기, 낭만과 사랑의 시기, 성인사회와 문화로부터 소외되는 시기 등으로 표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아동기나 성인기처럼 생의 주기에 있어서 좀 더 안정된 시기와는 대조적으로 심리적 갈등과 정신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의

기소침하고 격렬하며 예측 불가능한 생각이나 불안에 짓거나 불안에 대하여 과잉 방어하는 경향까지 있다고 한다. 청소년기는 주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고 자아발견의 시기, 제 2 탄생기, 제2 반항기,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리며 아동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불균형이 심하 긴장이 일어나는 때이고, 이 시기는 인간 발달과정에서 가장 극심한 혼돈과 좌절, 도전과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사회적으로 특정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의 변화 또한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안경옥(1988)은 여고생의 정신건강 상태와 그 영향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시내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3학년 학생 968명을 대상으로 상태불안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태불안과 정신건강과는 상관관계가 있어서, 상태불안 수준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이 좋은 정적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결론하였다.

박선희(1990)는 여고생 1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한 여고생의 스트레스와 불안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불안 정신건강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으며,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의 불안,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정신건강을 해치게 되고 부적응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볼 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결점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이 처한 환경을 얻을 수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불안 상태에 있으며, 불필요한 공포감과 강박감을 가진다.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력을 통찰력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만을 피하고 정의의 지향하며 사회규범을 지키는 생활을 익숙해야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과학영재학교와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부산 시내 인문계 남자고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과학영재학교 1학년과 부산 시내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 1학년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 수는 과학영재학교 1학년 남학생 100명, 여학생 17명,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129명으로 총 246명을 하였다.

2. 자료수집 기간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11월 10일부터 2003년 12월 10일까지 한 달간 과학영재고는 본 연구자가 직접, 인문계 남자고등학교는 본 연구자가 당해 학교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보건교사가 수업시간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3.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을 묻는 10개의 문항과 상태불안 측정도구 20문항, 정신건강 측정도구 47문항으로 총 7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상태불안 측정도구

자가보고 형식으로 구성된 Spielberger의 STAL 중 상태불안 척도를 한국인에 맞게 번역한 김정택(1978)의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89였다.

본 도구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20개 문항의 4점 척도도구로써 사고의 균형을 위하여 10개의 도치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긍정의 10개 문항에서는 “대단히 그렇다”를 1점으로 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를 4점으로 하며, 부정의 10개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하고 “대단히 그렇다”를 4점으로 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은 심한 것으로 보았다.

2) 정신건강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Derogatis(1973)등이 Hopkins Symptom Check List (HSCL)을 발전시켜 제작한 90문항의 Symptom Checklist (SCL-90-Revision)이 있는바, 이를 이요하여 이훈구(1986)가 요인 분석하여 제작한 47문항의 간이정신건강 상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의 내용 신체화, 강박증, 예민증, 우울증, 불안, 공포, 적대감, 편집증, 정신증의 9가지 증상차원으로 구성된다. 대상자는 오늘을 포함하여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 정도에 따라 “전혀 없다”는 0점 “약간 있다”는 1점, “보통이다”는 2점 “약간 심하다”는 3점 “아주 심하다”는 4점으로 5점 평점을 하게 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서 얻어진 점수가 낮을수록 정신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구의 신뢰도는 .97이었다.

<표1> 측정도구의 구성

종류	하위척도	문항수	신뢰도
상태불안 검사	전체	20	.89
	신체화	7	.87
	강박증	5	.72
	예민성	8	.85
	우울증	4	.66
정신건강진단검사	불안	4	.80
	적대감	6	.84
	공포불안	4	.84
	편집증	4	.85
	정신증	3	.80
	전체	46	.97

* 정신건강진단검사의 부가적 문항18번 제외

4. 자료 분석 방법

과학영재고 및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상태불안 및 정신건강 측정자료는 사회 과학 통계패키지인 SPSSWIN(ver.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영재고 남학생집단과 일반고 남학생 집단 간에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된 두 집단 간 평균 차 검증(Independent two samples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과학영재고 학생들간에 성별 및 기타 배경변인별(성별, 연령, 종교, 형제순위, 신체적 건강상태, 부모의 생존여부, 경제상태, 보호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평균 차 검증 혹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정신건강의 경우 전체점수와 함께 모든 하위영역별로 차이검증을 수행하였다.

둘째, 과학영재고 남학생, 과학영재고 여학생, 일반고 학생을 구별하여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하위 영역별 적률상관계수(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의한 빈도와 백분율 ()안은 %

특성	구분	영재고(N=117)	일반고(N=129)	전체(N=246)
성별	남	100(85.5%)	129(100%)	229(93.1%)
	여	17(14.5%)	.	17(6.9%)
연령	15세	6(5.1%)	1(0.8%)	7(2.8%)
	16세	21(17.9%)	12(9.3%)	33(13.4%)
	17세	87(74.4%)	114(88.4%)	201(81.7%)
	기타	3(2.6%)	2(1.6%)	5(2.0%)
종교	불 교	16(13.7%)	42(32.6%)	58(23.6%)
	기독교	33(28.2%)	15(11.6%)	48(19.5%)
	기 타	13(11.1%)	5(3.9%)	18(7.3%)
	무 교	55(47.0%)	67(51.9%)	122(49.6%)
형제순위	첫 짜	71(60.7%)	62(48.1%)	133(54.1%)
	중 간	6(5.1%)	8(6.2%)	14(5.7%)
	막 내	33(28.2%)	52(40.3%)	85(34.6%)
	독 자	7(6.0%)	7(5.4%)	14(5.7%)

특성	구분	영재고(N=117)	일반고(N=129)	전체(N=246)
신체적 건강상태	매우건강하지못한편	4(3.4%)	0(0.0%)	4(1.6%)
	대체로건강치못한편	15(12.8%)	18(14.0%)	33(13.4%)
	건강한 편	77(65.8%)	77(59.7%)	154(62.6%)
	매우 건강한 편	21(17.9%)	34(26.4%)	55(22.4%)
부모의 생존여부	양친생존	115(98.3%)	128(99.2%)	243(98.8%)
	편부	0(0.0%)	1(0.8%)	1(0.4%)
	편모	1(0.9%)	0(0.0%)	1(0.4%)
	양친사망	1(0.9%)	0(0.0%)	1(0.4%)
경제상태	상	16(13.7%)	10(7.8%)	26(10.6%)
	중	98(83.8%)	101(78.3%)	199(80.9%)
	하	3(2.6%)	18(14.0%)	21(8.5%)
보호자의 교육정도	무학	0(0.0%)	1(0.8%)	1(0.4%)
	국졸	1(0.9%)	3(2.3%)	4(1.6%)
	중졸	1(0.9%)	14(10.9%)	15(6.1%)
	고졸	11(9.4%)	71(55.0%)	82(33.3%)
	대졸	57(48.7%)	32(24.8%)	89(36.2%)
	대졸이상	47(40.2%)	8(6.2%)	55(22.4%)
부모에 대한 나의 태도	애정적	92(78.6%)	95(73.6%)	187(76.0%)
	의존적	10(8.6%)	18(14.0%)	28(11.4%)
	복종적	4(3.4%)	4(3.1%)	8(3.3%)
	반항적	6(5.1%)	6(4.7%)	12(4.9%)
	무관심	5(4.3%)	6(4.7%)	11(4.5%)

성별은 과학영재고는 학생선발과정에서 성별 구분 없이 영재의 판별과 선발을 위하여 다단계의 수행과정 평가를 통하여 선발하였다.

연령은 과학영재고는 선발모집과정에서 중학교 1, 2학년 과정만 수료하고 조기 입학한 학생으로 일반고 학생보다는 연령이 낮은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를 제외한 기독교가 많았다.

형제는 첫째가 50% 이상이고, 신체적 건강상태는 양 집단 다 건강하다고 반응하였다.

대체로 양친부모가 생존하며, 경제는 중이 많고, 영재고 학생 보호자의 교육정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상태불안 비교분석

1) 과학영재고 남학생과 일반고 비교

<표3> 과학영재학교 남학생과 일반고 학생간의 상태불안 비교

학교	N	평균	표준편차	t	p
영재고(남)	100	40.61	9.11	1.78	.076
일반고(남)	129	38.45	9.09		

※ 과학영재학교 남학생과 일반고(남학생) 학생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78, p=.076$)

2) 과학영재고의 남녀 비교

<표4> 과학영재학생의 성별간의 상태불안 비교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남	100	40.61	9.11	2.05	.043
여	17	35.88	6.53		

과학영재학교의 남학생의 상태불안점수와 여학생의 상태불안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므로($t=2.05, p=.043$), 남학생의 상태불안점수가 여학생의 불안점수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보면 여학생 불안점수가 높은 반면, 본교에서는 여학생이 낮다.

연구자 관점으로 볼 때 비교대상이 적고, 남학생이 가정과 사회에서 높은 기대와 진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불안점수가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3) 과학영재고의 배경변인과 상태불안과의 비교

<표5> 배경변인과 상태불안과의 관계

특성	배경변인		상태불안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Duncan
연령	15세	39.33	9.27	0.32	.992	
	16세	39.62	9.55			
	17세	40.08	8.95			
	기타	39.00	8.49			
종교	불교	44.38	12.29	2.79	.44	
	기독교	37.82	5.27			
	기타	36.62	5.03			
	무교	40.67	9.74			

특성	배경변인		상태불안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Duncan
형제순위	첫째	39.79	8.27	.35	.792	
	중간	37.50	4.18			
	막내	40.27	11.16			
	독자	42.43	7.25			
신체적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36.75	2.75	4.42	.006	매우건강=매우 건강하지 못함 <건강 <대체로 건강하지 못함
	대체로 건강하지 못한 편	45.85	12.11			
	건강한 편	40.14	8.65			
	매우 건강한 편	35.52	4.94			
경제상태	상	37.75	9.53	.88	.418	
	중	40.20	8.89			
	하	44.33	7.03			
부모에 대한 태도	애정적	38.59	7.42	5.37	.006	애정적 <비애정적
	배애정적	45.27	12.49			
보호자의 교육 정도	고졸이하	40.67	9.11	1.47	.235	
	대졸	38.53	8.48			
	대학원이상	41.89	9.37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살펴본 결과 종교($F=2.79, p=.044$), 신체적 건강상태($F=4.42, p=.006$), 부모에 대한 태도($F=5.37, p=.006$)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간에 별 차이가 없고, 신체적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대체로 건강하지 못한 편, 건강한 편, 매우 건강한 편으로 구분하였으며, 신체적 건강상태가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태도는 애정적과 비애정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부모에 대한 태도가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신건강 비교 분석

1) 과학영재고 남학생과 일반고 비교

<표6> 과학영재학교 남학생과 일반고(남학생) 학생간의 정신건강 비교

정신건강 (하위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체	영재고(남)	95	95.78	36.2	2.01	.045
	일반고	121	86.80	27.28		
신체화	영재고	97	14.20	6.22	1.76	.080
	일반고	126	12.83	5.04		
강박증	영재고	98	12.27	4.50	1.18	.238
	일반고	128	11.61	3.58		
예민성	영재고	97	18.14	7.05	1.16	.247
	일반고	128	17.13	5.45		
우울증	영재고	98	9.75	3.42	3.42	.001
	일반고	127	8.30	2.74		
불안	영재고	97	8.02	3.44	2.69	.008
	일반고	127	6.87	2.97		
적대감	영재고	98	12.94	5.87	1.06	.291
	일반고	127	12.18	4.53		
공포불안	영재고	98	7.00	3.43	1.68	.095
	일반고	127	6.28	2.97		
편집증	영재고	97	8.12	3.85	1.89	.060
	일반고	127	7.21	3.41		
정신증	영재고	98	6.42	3.19	3.29	.001
	일반고	128	5.12	2.60		

과학영재학교 남학생과 일반고(남학생) 학생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01$, $p=.045$). 과학영재학생의 정신건강진단점수가 일반고 학생의 정신건강진단점수 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신건강 하위변인 중 우울증($t=3.42$, $p=.001$)과 정신증($t=3.29$, $p=.001$)은 매우 유의한 차이로 과학영재학생이 높았고, 불안($t=2.69$, $p=.008$)도 유의한 차이로 과학영재학생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일반고 학생보다 과학영재학생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2) 과학영재학생의 성별 비교

<표7> 과학영재학교 남학생과 일반고(남학생) 학생간의 정신건강 비교

정신건강 (하위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체	남	95	95.78	36.2	1.35	.179
	여	17	83.35	27.58		
신체화	남	97	14.20	6.22	1.12	.266
	여	17	12.41	5.14		
강박증	남	98	12.27	4.50	1.30	.196
	여	128	11.61	3.58		
예민성	남	97	18.14	7.05	2.20	.030
	여	17	14.18	5.50		
우울증	남	98	9.75	3.42	1.24	.224
	여	17	9.00	2.03		
불안	남	97	8.02	3.44	1.82	.071
	여	17	6.41	2.85		
적대감	남	98	12.94	5.87	1.90	.065
	여	17	11.12	3.12		
공포불안	남	98	7.00	3.43	.58	.562
	여	17	6.47	3.69		
편집증	남	97	8.12	3.85	1.55	.123
	여	17	6.59	3.16		
정신증	남	98	6.42	3.19	.01	.994
	여	17	6.41	3.02		

과학영재학교의 남학생의 정신건강점수와 여학생의 정신건강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35$, $p=.179$), 다만 정신건강 하위변인 중 예민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20$, $p=.030$),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예민성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과학영재고의 배경변인과 정신건강과의 비교

<표8> 배경변인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특성	배경변인		정신건강			
	구분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Duncan
연령	15세	80.67	33.68	1.02	.388	
	16세	85.19	24.91			
	17세	97.49	37.22			
	기타	87.00				
종교	불교	104.87	34.95	1.93	.227	
	기독교	99.49	35.21			
	기타	75.55	23.37			
	무교	91.11	35.94			
형제순위	첫째	91.82	30.93	1.47	.227	
	중간	77.83	28.94			
	막내	97.03	44.16			
	독자	117.17	25.44			
신체적 건강 상태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97.75	25.97	1.87	.139	
	대체로 건강하지 못한 편	108.14	35.40			
	건강한 편	94.70	35.91			
경제상태	매우 건강한 편	80.15	30.03	.12	.889	
	상	91.13	35.54			
	중	94.56	35.60			
부모에 대한 태도	하	85.50	21.92	3.85	.024	애정적 <비애정적
	애정적	89.75	33.39			
	배애정적	114.71	36.09			
보호자의 교육 정도	고졸이하	84.70	31.98	3.85	.024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대졸	86.86	28.41			
	대학원이상	104.89	40.90			

부모에 대한 태도(F=5.44, p=.006)와 보호자의 교육정도(F=3.85, p=.024)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태도는 애정적과 비애정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부모에 대한 태도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에 대한 태도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명희(198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보호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보호자의 교육정도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 비교

<표9> 대상자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 관계

학교	상태불안	구분	신체화	강박증	예민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정신건강 전체	
영재고 (남)	상태불안	Pears on상관 계수	.452 *	.539 *	.518 *	.500 *	.576 *	.520 *	.365 *	.494***	.451**	.556**	
		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97	98	97	98	97	98	98	98	98	97	95
일반고 (남)	상태불안	Pears on상관 계수	.340 *	.428 *	.468 *	.436 *	.632 *	.521 *	.405 *	.547***	.469 **	.560 **	
		p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26	128	128	127	127	127	127	127	127	128	121
영재고 (여)	상태불안	Pears on상관 계수	.391	.508 *	.314	.372	.261	.209	.197	.361	.291	.381	
		p	.212	.307	.220	.141	.311	.420	.449	.155	.257	.131	
		N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대상자의 집단별로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과학영재학교 남학생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간에는 통계적으로 높게 유의한 순 상관관계($r=.556, p=.000$)를 나타냈다. 또한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9개 하위변인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일반고(남) 학생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간에는 통계적으로 높게 유의한 순 상관관계($r=.560, p=.000$)를 나타냈다. 또한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9개 하위변인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과학영재학교 여학생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간에는 상관관계($r=.381, p=.131$)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정신건강의 하위변인중 강박증에 있어서 유의한 상관관계($r=.508, p=.03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남학생들에게 상태불안이 높을수록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가 높다. 그러므로 남학생들의 상태불안점수는 정신건강상태를 알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건강상담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속해 있는 과학영재학생 1학년과 일반남자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상태불안과 정신건강의 정도를 파악하고 상태불안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부산과학영재1학년 남학생100명, 여학생 17명 부산시내 인문계 남자고등학교1학년 129명으로 총246명을 대상으로 2003년 11월 10일부터 2003년 12월 1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로는 Spielberger의 상태불안 척도와 이훈구의 간이정신건강 상태 측정도구(요인분석하여 제작한 47문항)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차 검증(independent two samples t-Test),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과학영재학교 남학생과 일반고(남학생) 학생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78, P=.076$)
2. 과학영재학교의 남학생의 상태불안점수와 여학생의 상태불안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므로($t=2.05, p=.043$), 남학생의 상태불안점수가 여학생의 불안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보면 여학생 불안점수가 높은 반면, 본교에서는 여학생이 낮다. 연구자 관점으로 볼 때 비교대상이 적고, 남학생이 가정과 사회에서 높은 기대와 진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불안점수가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3.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살펴본 결과 종교($F=2.79, p=.044$), 신체적 건강상태($F=4.42, p=.006$), 부모에 대한 태도($F=5.37, p=.006$)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집단간에 별 차이가 없고, 신체적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 대체로 건강하지 못한 편, 건강한 편, 매우 건강한 편으로 구분하였으며, 신체적 건강상태가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모에 대한 태도는 애정적과 비애정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부모에 대한 태도가 상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과학영재고 남학생과 일반고 학생간의 정신건강을 살펴본 결과 과학영재고 남학생과 일반고(남학생) 학생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01, p=.045$). 과학 영재학생의 정신건강진단점수가 일반고 학생의 정신건강 진단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신건강 하위변인중 우울증($t=3.42, p=.001$)과 정신증($t=3.29, p=.001$)은 매우 유의한 차이로 과학영재학생이 높았고, 불안($t=2.69, p=.008$)도 유의한 차이로 과학영재학생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일반고 학생보다 과학영재학생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더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5. 과학영재고의 남학생의 정신건강점수와 여학생의 정신건강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35, p=.179$), 다만 정신건강 하위변인중 예민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t=2.20, p=.030$),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예민성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살펴본 결과 부모에 대한 태도($F=5.44, p=.006$)와 보호자의 교육정도($F=3.85, p=.024$)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대한 태도는 애정적과 비애정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부모에 대한 태도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졸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정신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대상자의 집단별로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과학영재고 남학생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간에는 통계적으로 높게 유의한 순 상관관계($r=.556, p=.000$)를 나타냈다. 또한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9개 하위변인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일반고(남) 학생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간에는 통계적으로 높게 유의한 순 상관관계($r=.560, p=.000$)를 나타냈다. 또한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9개 하위변인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과학영재고 남학생과 일반고(남) 학생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전명희(1987)의 연구에서 상태불안과 정신건강은 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셋째, 과학영재고 여학생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 간에는 상관관계($r=.381, p=.131$)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정신건강의 하위변인중 강박증에 있어서 유의한 상관관계($r=.508, p=.03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남학생들에게 상태불안이 높을수록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가 높다. 그러므로 남학생들의 상태불안 점수는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건강상담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2) 제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과학영재고의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표집한 불안상태와 정신건강 정도를 파악하는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정신건강의 하위변인들과 상관이 있는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보다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 상관발생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탐색이 필요하다.
3. 상태불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임을 고려하고, 이러한 상태불안 완화를 위하여 학교차원에서의 건강지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박종미(1997),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원인과 그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가실(1990), 스트레스 생활사건, 건강문제, 대응, 사회적 지지의 관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0(3),414~426.
- 김경식(1987),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의 신체발육상태, 체력장 검사 및 신체적 자아 사이의 상호관계, 신경정신의학,17,386~393.
- Spielberger, C.D(1975) "Anxiety state-trait process" stress and anxiety, ed. By S-pielberger & Sarason, Vol.1, N.Y, John Williey and sons, 1975. pp115-144
- 김희정(1992),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권51~67.
- 김선미(1993), 고등학생들의 소외와 신체,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선대학교석사학위논문
- Derogatis, L,R, Lipman, R.S, and Govi, L.(1973), SCL-90-R, 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 Psychopharm. 1,9, 13~27
- 전경원(1992), 휴머니즘에 입각한 특수한 영재교육. 서울; 양서원
- Renzull, J.S(1978) The Enrichment Triad Model. Creative Learning Press.
- Getzels, J.W&Jaeson, P.W.(1962) Creativityand Intelligence. New York; Wiley

- 문정화, 하종덕(1999). 또 하나의 교육 창의성. 서울; 학지사
- 이화국(1999), 과학 영재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영재의 선발과 교육. 그리고 평가, 춘계학술세미나, 서울; 한국영재학회
- 강호감(1999), 과학 영재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영재의 선발과 교육. 그리고 평가, 춘계학술세미나, 서울; 한국영재학회.
- 신미경(2000), 과학영재의 과학 학업성취도, 자아 효능감, 과제수행특성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종하(1987), 과학영재교육론. 서울; 학연사.
- Sullivan(1953) "The intra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w.Nrthen 1953, p.127
- Susie Kim(1978) "Preparatory information, anxiety and pain: A Contingency model & it's nursingimplication".Ph. dissertration, Boston University, 1978,p.18
- 전명희(1978), 청소년의 상태불안과 정신건강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김정선(2001),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불안,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아자 외(1997), 제 3판 정신간호총론(상). 서울; 수문사.
- 이영자(1995),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 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Marie Johoda Freedman et al.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11" 2nd ed. Baltimore William and Wilkins Co. 1976.p.1175
- 임규혁(1984),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분석적 연구, 고려대학교교육문제연구소
- 이현주(1992),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강분희(1999), 고등학생의 정신건강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신(1993),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A. Freud, "Adolescence, the psychoanalytic Study of chil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ties Press, Vol.13, pp.225~278.
- I.G.Sarason,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51, 1970. pp.253~260.
- 안경옥(1988), 여고생의 정신건강상태와 그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희(1990), 여고생의 스트레스의 불안 및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택(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Derogatis, L. R. Lipman, R.S, and Govi, L(1973), SCL-90-R, 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 Psychopharm, 1,9,13~17.
- 김광일 외 3인(1983), 고등학교 재학생의 정신건강 실태 연구(1): 개인집중조사에 의한 소견 : 정신건강연구 제1집, 서울;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원호택(1978), 간이정신집단검사(SCL-90)에 의한 한국판 표준화 연구II, 한양대학교 논문, Vol.12.
- Spielberger, C. D(1975) “The nature&\measurement of anxiety”, Inc.
Spielberger & R. Diaz-Guerrero cross-Cultural anxiety
New-York, John Willey&Sons, pp3-12 연수원, 1999.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부설, 학교보건 교육과정 자유연수교재, 부산중등교원
부산광역시 교원연수원 양호교사 1급 자격 연수교재, 서면문화사.
-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학생 정신건강지도 자료, 서면문화사, 1994.